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

TEL.(02)2149-1000(대), 1015 FAX.(02)2149-1019

연구원 홈페이지(www.sdi.re.kr)를 통해서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도시동향

80

2003년 10월 6일

HEADLINE NEWS

도심공원에서 건초수레를 타고 즐기는 주말여가프로그램 마련 (세인트루이스)

미국 세인트루이스(St. Louis)市는 도심공원인 포레스트 파크(Forest Park)*에서 수레를 타고 농촌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주말여가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야간에 포레스트 파크에서 건초를 실은 수레를 타고 다니며 소풍을 즐기는 것이다. 시민들은 트랙터가 끄는 건초수레를 45분 동안 타고 공원의 곳곳을 돌아보며, 모닥불이 준비된 곳에서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조리해 먹으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건초수레는 최대 20명까지 탈 수 있으며, 비용은 한 수레당 80달러이다. 수레는 밤 7시부터 8시 20분까지 10여 차례 출발하며, 남녀노소 관계없이 市공원과에 미리 예약한 주민이면 이용 가능하다.

* Forest Park: 市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공원. 전체 넓이는 1,370에이커로, 뉴욕의 Central Park보다 약 500에이커 더 넓다. 이 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 중 하나로서, 동물원, 미술관, 역사박물관, 과학센터 등 지역의 주요 문화시설이 있으며, 한 해 1천2백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stlcin.missouri.org/release/getpressdetails.cfm?Auto=572)

HIGHLIGHTS

도시관리

1 도시의 안전 및 개발 위해 노후주택 철거 추진 볼티모어

도시환경

2 100만 에이커가 넘는 '녹색생태가로Ecological Greenway)' 조성 (플로리다州: 탤러해시市)

3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거리청소 자원봉사 '실시 (샌프란시스코)

4 청년 대상의 생태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 (베를린)

도시교통

5 광역 급행버스시스템 구축 추진 (애틀랜타)

6 감시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주차차량 단속 (아랍에미리트: 샤르자市)

7 주행 중 차간거리 식별을 위해 차로에 일정간격으로 점 표시 (펜실베이니아州: 해리스버그市)

사회복지

8 市長 거주공간을 시청 탁아소로 개조 (파리)

행·재정

9 지하철 운영적자 감축을 위해 지하철터널에 광고판 설치 (워싱턴 D.C.)

10 하수도관망을 이용해 초고속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 추진 (시애틀)

11 이동전화를 이용한 911신고자의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뉴욕)

12 집주인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무료 워크숍 개최 (애리조나州: 피닉스市)

13 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공예술이벤트인 'Cow Parade' 개최 (동경)

도시관리/도시환경

세계도시동향

1 도시의 안전 및 개발 위해 노후주택 철거 추진 (볼티모어)

미국 볼티모어市는 볼티모어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건물 등의 부동산을 철거하기 위해 「노후주택 철거계획(Blight Elimination Project)」을 실시할 방침이다. 볼티모어 주택공사는 지역단체, 소방국, 경찰국, 도시계획국과 함께 향후 철거할 주택, 건물의 목록을 작성했으며, 市는 이 계획에 따라 내년 여름까지 2,266채의 건물, 주택을 철거할 예정이다. 市는 공채, 기금 등을 통해 1,820만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여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철거에 따른 신규 주택의 공급으로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범죄, 마약범죄 발생건수를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市는 이 계획을 통해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와 투자자들을 더욱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www.ci.baltimore.md.us/news/press/030808.html)

2 100만 에이커가 넘는 '녹색생태가로(Ecological Greenway)' 조성 (플로리다州: 탤러해시市)

미국 플로리다州가 추진중인 「Florida Forever」 계획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보존하고, 수자원을 회복하며, 중요한 문화·역사적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북동 플로리다 4개군(郡)에 걸친 200마일의 보전지역 확충사업은 州의 'Acquisition and Restoration Council'에서 최근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다. 또한, 州의 녹색생태가로(Ecological Greenway) 조성을 위해 153,000에이커를 추가적으로 구매키로 했다. 환경보호당국에 따르면, 생태보전지역의 확충은 역사·생태적 자원 보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며, 100만 에이커가 넘는 녹지대를 연결하는 사업은 야생생물에게는 안식처를,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야외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www.dep.state.fl.us/secretary/comm/2003/august/0815.htm)

3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거리청소 자원봉사' 실시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지역사회 정화모임(Community Clean Team)'은 시민, 상인, 학생이 협력하여 市와 인근지역을 청소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 이 모임의 자원봉사자들은 2월부터 11월까지 市의 각 지역을 돌며, 매달 2~3회씩 토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지정된 장소에 모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쓰레기를 줍고, 인근에 있는 나무들을 돌보고, 낙서를 지우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청소도구와 나무를 가꾸는 데 필요한 도구가 제공되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점심도 제공된다. (sfgov.org/site/frame.asp?u=/sfdpw/vol.htm)

4 청년 대상의 생태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 (베를린)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는「자율적인 생태의 해」1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는 학교를 졸업한 27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의무를 일깨우고 직업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은 1년간 행해진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0년 동안 환경 분야에서 중요한 청년교육사업으로 발전했다. 유럽연합은 초기에 이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이 프로젝트는 1993년에 시작되었는데, 참가자가 처음의 20명에서 현재는 182명까지 늘어났으며, 참가 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영역은 동식물 및 경관 보호, 환경교육, 그리고 환경공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참가자들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포괄적인 생태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

5 광역 급행버스시스템 구축 추진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 대도시권 지역에서 운행될 광역 급행버스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예산 승인이 최근 이루어졌다. 우선 290만 달러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市는 이 예산으로 CNG 버스 및 5대의 청정 디젤버스를 구입할 예정이다.

'The Georgia Regional Transportation Authority'에 의해 추진중인 이 사업은 市 지역 내의 11개 카운티에 걸쳐 첫 해에 26개 광역노선을 제공하고 2010년까지 37개 노선을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예산으로 3,17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83%를 연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www.metro-magazine.com/t_newspick.cfm?id=9056563)

6 감시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주차차량 단속 (아랍에미리트: 샤르자市)

아랍에미리트 샤르자(Sharjah)市 경찰당국은 불법주차차량 단속을 위해 도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市는 교통상황 모니터링 증진 및 범죄예방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키로 하고, 우선적으로 32개의 카메라를 주요 도로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 감시카메라는 차량번호까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불법주차차량이 발견될 경우 차량번호를 통해 운전자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운전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 카메라는 그 밖에 24시간 교통상황을 점검하고,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www.gulf-news.com/Articles/news.asp?ArticleID=95597)

도시교통/사회복지

세계도시동향

7 주행 중 차간거리 식별을 위해 차로에 일정간격으로 점 표시 (펜실베이니아州: 해리스버그市)

미국 펜실베이니아州 교통부는 운전자의 차간거리 식별을 돕기 위해 차로에 점(dot) 표시를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이 노면상의 점들은 서로 일정 간격(약 35m)을 두고 표시되어 있어, 이 점을 기준으로 운전자들은 앞차와의 거리를 손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은 추돌사고 건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미 유럽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미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추돌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州내 5개 도로에서 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11번 도로 구간에서는 시행한 후 6개월간 추돌사고가 6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www.kansascity.com/mld/kansascity/news/breaking_news/6721315.htm)

8 市長 거주공간을 시청 탁아소로 개조 (파리)

최근 프랑스 파리市는 市청사 내에 탁아소를 개설했다. 이는 市청사 내에 위치해있는 市長의 사적인 거주공간을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 침실, 식당 등으로 개조한 것이다. 2층에 위치한 500㎡ 규모의 공간에는 45개의 요람이 市직원을 위해 설치되었고, 1층의 200㎡의 공간에는 파리 4구의 어린이들을 위해 22명 수용 규모의 탁아소가 위치하게 되었다. 탁아소는 천정이 높고 환기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센강이 보이는 등 전망이 좋은 편이다.

(www.paris.fr/fr/Solidarites/actu_creche_hdv.asp)

9 지하철 운영적자 감축을 위해 지하철터널에 광고판 설치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와 근교의 메릴랜드州 및 버지니아州를 연결하는 지하철공사 '메트로'는 매년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최근 컴컴한 지하철 터널에 광고판을 설치해 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획중인 광고안은 만화영화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지하철 터널의 벽면에 일련의 광고사진을 붙여 지하철이 움직일 때 승객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광고 사진들의 동영상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메트로'는 이 밖에도 주차장에 잡화점을 운영하는 방안과, 열차에 비디오 모니터를 설치하여 광고프로그램을 승객들이 시청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The Washington Post, 2003. 8. 31), (Metro, 2003. 9. 1)

10 하수도관망을 이용해 초고속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 추진 (시애틀)

미국 시애틀市는 CityNet 텔레콤 회사와 하수도관망을 이용해 초고속 광섬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市는 이 협정을 통해 계약금 5만 달러 및 시민의 CityNet 이용수입의 2.5%를 거둬들이는 재정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향후 하수도관망은 하수도 용도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수도관망 설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자체 재원 조달이 가능하고, 市에 경제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CityNet이 초고속 네트워크 설치를 위해 사용하는 최신기술인 'Sewer Access Module' 로봇은 전화 및 케이블선의 설치 및 운반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과거에 사람이 청소할 때에는 하부기간시설의 훼손이 종종 있었으나, 로봇 활용으로 하수도 준설의 안전과 편리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www.ci.seattle.wa.us/news/detail.asp?ID=3643)

◈ 이동전화를 이용한 911 신고자의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뉴욕)

미국 뉴욕市는 이동전화를 이용해 911에 신고하는 사람들의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휴대전화서비스 제공업체 및 관련 소프트웨어업체와 협력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무선 E 911' 서비스 개선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며, 올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는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상황실 근무자는 휴대전화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신고자의 전화번호,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911 신고전화의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걸려오고, 이러한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마련되었다.

(www.fcw.com/geb/articles/2003/0825/web-nyc-08-29-03.asp)

◈ 집주인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무료 워크숍 개최 (애리조나州: 피닉스市)

미국 애리조나州 피닉스市는 9월 18일, 집주인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행사 참여는 무료였다. 이 워크숍은 市지역사회과(Neighborhood Services Department)에서 후원하는 세미나 중의 하나이다. 이들 세미나는 매달 2~3차례씩 '효과적인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갈등 관리', '지역사회보전조례', '효과적인 주민회의 운영방법', '지역소식지 만들기' 등 지역사회 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www.ci.phoenix.az.us/NEWSREL/wkshp.html)

❀ 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공예술이벤트인 'Cow Parade' 개최 (동경)

일본 東京 도심의 마루노우찌(丸の內) 일대에서는 9월 5일부터 한 달간 세계적인 예술이벤트행사인 'Cow Parade'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도심일대 재개발추진협의회와 NPO 조직 등 민간단체 주관 하에 개최된 것으로, 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Cow Parade'란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소를 테마로 실물 크기의 작품을 만들어 거리와 이벤트 공간에 전시하는 것으로,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예술이벤트로 알려져 있다. 제1회 대회는 1998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시카고, 뉴욕, 캔자스시티, 휴스턴, 런던 등지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이번 전시회는 여섯 번째이다. 특히, 이 행사는 전시회가 끝나면 전시된 소들을 경매에 부치고, 수익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과거 Cow Parade의 전시작품>

(cowmarunouchi.jp/release), (cowmarunouchi.jp/parade)